영산재 짓소리 53곡 발견

법현스님 '동음집' 비교분석 발표
기존소리 15곡포함 68곡으로 늘어

영산재에 사용돼 온 짓소리는 그간 15곡만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짓소리의 곡목을 68곡으로 밝힌 논문이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악 음향자료 영구보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현스님(봉원사)이 최근 발간된 〈문화재 제28호〉를 통해 짓소리 68곡의 곡목을 밝힌 것.

법현스님은 수록 논문 '범패의 분류 연구(1)'를 통해 "그간 조사된 짓소리는 15곡이지만 어장(魚丈)들의 〈동음집(同音集)〉을 비교 분석한 결과 68곡외 곡목과 가사내용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1968년 5월 13일~16일까지 서울 봉원사에서 거행된 영산재에서 김운파 박송암 김운공 박운월 등 어장들에 의해 밝혀진 짓소리는 모두 11곡이었다. 그후 69년 8월 8일과 12일 한만영교수(서울대)에 의해 2곡이 더 채록되었으며 지난해 10월 19일 박송암스님의 증언과 조사에 의해 2곡이 더 조사된 것이 짓소리 15곡의 조사과정이다. 그러나 송암스님등 원로 어장들은 "영산재에 쓰인 짓소리는 72곡 이상이란 얘길 스승들에게 들어 왔다"고 전했으며 그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던 법현스님이 최근 68곡의 짓소리 곡명과 가사를 밝힌 것이다.

법현스님은 박세민스님이 91년에 펴낸 〈불교의식자료총서〉와 박운월스님 소장판본 〈동음집〉 김운공스님 소장 판본 〈동음집〉 〈옥천유교동음집〉 장벽응스님 소장 판본 〈동음집〉을 토대로 짓소리의 곡명과 가사를 밝혔다. 〈동음집〉이란 어장들이 스승에게 소리를 배우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와 같이 내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받아 적어 둔 일종의 노트다.

"〈불교의식자료총서〉과 네권의 동음집을 분석한 결과 운월스님 소장본에는 57곡이 운공스님 소장본에 57곡 옥천유교동음집에 59곡 벽응스님 소장본에 60곡의 짓소리 곡명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을 분석해 보니 68곡의 짓소리와 그 가사가 일목요연하게 분류됐다."

사부청(四部請) 시제중등일(是諸衆等一) 등 법현스님이 새로 밝힌 53곡의 짓소리는 곡명과 가사는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그 소리가 어떤 음률로 불리워 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생존하는 어장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가 복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법현스님

◇영산재에 사용돼 온 짓소리가 지금까지의 15곡에 53곡이 추기돼 68곡임이 밝혀졌다. 사진은 영산재 의식을 봉행하고 있는 인간문화재 스님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내년까지 충남등 나머지 7개도의 문화유적을 수록한 2·3집을 발간, 전국의 문화유적을 총망라한 CD롬 종합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국 문화유적 총람 CD롬 발간

사찰·성·마애불·석탑등 5천여건 유적별 수록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CD롬이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장경호)는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제주도, 경기도 등 전국 8개 시·도 지역의 문화유적 5천여건과 이에 대한 자료를 총정리한 '전국문화유적총람 CD-ROM'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제1집은 문화유적을 성, 봉수, 전적지, 궁, 사찰, 마애불, 석탑, 당간지주, 충효비 등 40여 종류로 구분해 유적별로 명칭, 소재지, 유적내용 설명, 지정문화재 여부, 관리자 등을 담고 있으며 1천5백여장의 컬러사진과 1백20장의 문화유적 분포지도도 함께 수록했다. 유적의 종류별, 시대별검색은 물론 다양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며, 편집, 화일저장, 인쇄 기능은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컬러사진 및 분포지도 정보까지 지원한다.

'문화유적총람 CD롬'은 국가 또는 지방이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단체 등이 이제까지 조사해 확인한 유적들도 빠짐없이 모두 망라해 해당지역의 문화유적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인사동·대학로등 '문화특구' 추진
4대문 고궁일대는 '문화지구'로

인사동·대학로등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문화특구', 역사·전통문화가 밀집한 4대문 고궁주변 일대가 '문화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문화예술상 특성이 있는 일정지역 문화업종에 세제 및 건축상의 혜택을 주어 차별화하는 문화특구·지구 지정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특·지구 우선 검토지역은 덕수궁~경희궁~세종문화회관 연결지역과 인사동~운현궁~종묘~비원~창경원~대학로 연결지역 등이다.

이곳은 고궁·전시공간·거리공연장 등과 골동·고미술품점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는 각종 상가 및 업무빌딩 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막는 한편 문화관련 업종 시설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월 문화인물 최치원

'사산비명' 금석학 最古寶典
'법장화상전' 등 불교서 다수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2월의 문화인물은 고운(孤雲) 최치원(857~?)선생.

고운선생은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유학 외에 불교와 노장에 두루 섭렵하여 3교에 달통한 대학자며 문장가이다. 그는 12세에 당나라에 유학, 18세에 과거에 급제해 당나라에서 활동하면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명문장인 〈격황소서(檄黃巢書)〉로 문명을 날리게 된다.

그는 884년 당시 신라의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을 개혁안인 〈시무십여조〉를 왕에게 올렸으나 이것이 시행되질 않아 산천을 돌아다니다 898년 무렵 해인사로 은거하였다.

고운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은 〈진감선사비명〉(887) 〈낭혜화상비명〉(890) 〈지증대사비명〉(893) 〈대승복사비명〉(887~893) 등 통칭 〈사산비명〉이다. 〈사산비명〉은 우리나라 금석학의 최고의 보전으로 문헌적으로도 삼국사기·유사에 비해 시대가 훨씬 앞서며 역사뿐 아니라 불교사 문학사 사상사 등에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지증대사비문〉에서는 신라선종사를 간명하게 기술해 놓았다. 조선 광해군때 중관자 해안스님은 이 비명들에 주석을 붙여 승려들의 독본이 되게 했다. 이후 한영스님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해본이 나왔다. 또한 고운선생은 신라 하대 크게 유행한 화엄종에 관심을 가져 오늘날 확인된 화엄종 관련 글이 〈법장화상전〉 〈석이정전〉 〈석순응전〉 〈해인사묘길상탑기〉 등 20여종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전하는 저술은 〈계원필경〉 〈법장화상전〉 〈사산비명〉 뿐이고 글씨로는 쌍계사의 〈진감선사비문〉이 유명하다.

최치원의 달 기념행사로는 학술회의(2/9 성균관 유림회관) 강연회(2/12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 자료전시회 등이 열린다.

문화재 소식

'백월선사비 탁본' 등 134점 반환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수집, 일본으로 가져가 야마구치(山口)여대에 보관돼 온 조선시대 희귀자료 97종 134점이 국내에 반환돼 26일 공개됐다.

경남대(총장 박재규)는 야마구치여대와 2년여 교류 끝에 지난 23일 문화재 인수단을 파견, 자료를 기증받아 24일 본관 3층 특별전시실에 소장했다.

반환된 자료는 주로 조선후기 17~19세기의 간첩(서간모음), 시첩, 서화첩으로 추사 김정희가 친필로 자신의 서법을 기록한 '완당법첩조눌인병서(阮堂法帖曺訥人書)'와 신라 '백월선사비(白月禪師碑)탁본' '고려자등(高麗慈燈)탑비탁본' 등이 포함돼 있다.

경주 경마장등 올 유적발굴 활발

문체부 문화재관리국이 최근 전년도에 이은 조사와 96년 신규발굴작업 등 모두 75건의 금년도 발굴허가를 확정함에 따라 올 한해동안 전국 각지의 유적지에서 활발한 발굴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발굴작업으로 확정된 곳은 경주 손곡동과 인근 천북면 물천리 일대에서 벌어질 경주 경마장 건설부지에 대한 구제발굴작업, 경북 경산 임당동고분군과 충북 단양의 수양개 구석기유적 등이다.

불심시심 〈42〉

싸움터 남은 한

禪庵獨坐寂無事 (선암독좌적무사) 선암에 홀로앉아 일 없는 이 적막
來往雲霞訪草扉 (내왕운하방초비) 오가는 구름안개 초가집 문을 찾네
仙鳥亂鳴芳綠樹 (선조란명방록수) 푸른 숲에 우는 새 신선인 듯하지만
一身孤影亦哀哀 (일신고영역애애) 외로이 그림자는 역시 서글퍼
地僻無人絕世境 (지벽무인절세경) 궁벽한 땅 사람 없이 세상과 끊겨
焚香祝聖依柴扉 (분향축성의시비) 향피워 성수무강 축원 사립문 기대섰다
密旨眞經看讀罷 (밀지진경간독파) 오묘한 뜻 참다운 길 부처말씀 읽고나니
戰場遺恨滿腔脾 (전장유한만강비) 싸움터 남은 한이 창자속 그득하다

허백당대사가 정묘호란을 치르고 나서 장안사에 들러서 읊은 두 수의 시이다. 지난 번에 보았듯이 대사는 의승대장의 책무를 갑자기 받고 훈련도 되지 않은 승병을 이끌고 이 싸움을 끝내 이기겠다는 헐맹으로 전진을 수습하였다. 그런 결과로 이기고 지는 결과를 떠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의 몸으로 찾은 옛날의 도량이다.

전쟁과 평온, 그야말로 하늘 땅의 차이이지만 이 두 지점의 계기로 보면 또한 찰라의 순간이다. 생사의 위기 그 자체가 터럭끝만한 시공적 차이이다. 이 찰라의 순간을 지나 찾은 옛 집이다. 그 번화했던 옛날과 달리, 혼자 앉아 있게 된 암자이다. 정적의 고요함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야말로 무사하다. 어제의 소란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구름만이 찾아드는 사립문이다. 하지만 외로운 그 립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은 서글프다.

어제의 어수선함과는 너무도 현격한 오늘의 고요함, 그 야말로 인간세계를 끊은 경지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과 평온의 경계이리라. 싸움에서의 분주함도 이 나라 이 임금을 위해서였으니 평온을 찾은 이 암자에서도 또다시 임금님의 만수를 빌어야 함이 승려로서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무이기도 하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오묘한 진리의 경전에 잠시(潛示)해 본다. 현실세계의 싸움이 아직도 애끊는 아픔으로 남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참회로 되풀이 되어야 할 번뇌의 싸움이 남아 있어 더더욱 안타깝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글자 기원찾아 원형회귀"

최규일씨 '전각전'…13일까지 21세기화랑

현노 최규일씨가 7일부터 13일까지 인사동 이십일세기화랑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전각'을 하나의 새로운 시각 예술장르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최규일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서체를 더욱 회화화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는 최근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넓이 6×6㎝의 옥돌 1천1백10개에 이르는 대작 금강경을 완성한 바 있는 최씨는 이번 전시에 〈화엄경 약찬게〉 〈법성해인도〉 〈신중단〉 등 불교소재 작품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화엄경 약찬게·법성해인도.

"선사시대 암각화가 남아있는 것처럼 전각은 수만년의 역사를 지닌 예술임에도 우리나라는 인식부족으로 대중화되어있지 못해 아쉽습니다."

전각예술의 대중화가 이번 전시의 취지라는 것이 최규일씨의 설명이다. (02)735-4805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